

## 2019 ‘해외현장연구’ 를 마무리 하며

사학과 201621526 박서현

### 1. 국내사전연구

수업을 듣기 전에는 출국전 준비과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3-4개월 가량의 국내사전연구에서 지적으로 성장한 바가 많았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과정에서는 13명의 학우들과 서로 생각해 온 주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참신한 주제들을 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연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재량대로 연구주제를 정한다는 것이 부담되기도 하였지만 자료조사를 통해 아시아 여러 곳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많아 나중에는 연구주제를 추려내는 과정이 더 어려웠을 정도로 흥미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주제가 크게 나뉘지고 팀원들과 협동하여 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흥미로운 주제를 연구 주제로 삼으려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학술적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다듬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주제가 타당한가, 변수들의 인과관계가 적합한가, 주제가 향후 국내외에 미치는 기여도가 충분한가 등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며 여러 자료를 검토하는 회의를 거쳤습니다. 매주 수업시간에는 준비과정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른 팀원들이나 교수님께 받은 피드백을 통해 팀원들끼리는 생각지 못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의 연구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의 연구에 발전시킬 수 있는 점들을 참고하며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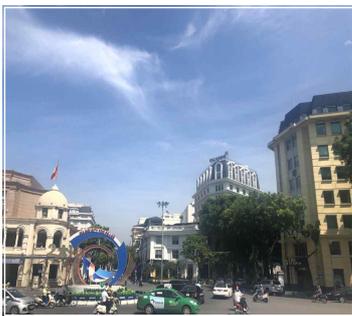
본격적으로 주제를 구체화하고 국내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 또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팀원들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분께 직접 메일을 보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맨땅에 부딪히듯 도전해보았습니다. 한 곳이라도 답변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려고 해주셔서 감사함을 느꼈고 연구자료 수집에 도움을 구할 때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베트남식당에서 일하는 베트남 종업원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질문을 작성하고 인터뷰를 정리하였는데, 베트남에서 박항서가 현지인들에게 갖는 인지도나 현지인들의 한식 선호도 등을 직접 확인하고 연구주제나 방향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술논문, 기관보고서 등 학술논문을 검토하고 요약하는 과정이 선행연구의 부족한 점이나 연구의 사각지대 등을 포착하면서 연구를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생각보다 한식의 세계화라는 문구 아래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각 나라에 불고 있는 한류의

특성 등에 초점화하지 않고 무작정 진출을 장려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설문 문항의 순서나 설문조사를 요청할 때 유의할 점들을 배웠습니다. 연구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하게 수집하려면 설문 문항을 잘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 필요하고 이를 pre-test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 번 수정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한달 간의 과정을 가지고 설문 문항을 여러 번 수정하였고 출국 직전까지 형식이나 번역을 수정하여 준비해 간 설문조사에서 충분한 자료수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그전까지의 연구자료를 종합하고 연구의 뼈대가 될 서론을 쓰는 역할을 맡아 연구를 하나의 글로 옮기는 과정을 배워 나갔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연구 전체의 기여도를 결정하는 글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고 중요한 근거가 될만한 참고문헌을 덧붙이며 제가 생각하는 연구배경, 연구목표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서론에서 쓴 내용과 본론의 내용이 상응하는지 보면서 출국전 보고서 전체를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서론에서 제시한 논제가 선행연구, 자료조사를 통해 하나씩 퍼즐 맞추듯이 보고서가 완성되는 모습을 통해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 2. 해외현장연구

해외경험은 꽤 있었지만 해외에 연구주제를 가지고 학술적인 목적으로 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긴장도 했고 사실 부담도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새롭고 보람된 경험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다섯 번 정도 가보았고 동남아시아입문이라는 수업을 수강하며 동남아의 역사와 정치, 그리고 경제 등 성장하는 동남아의 여러 면모를 책이나 여행을 통해 겪었지만 그저 글자로 보거나 여행자로서 보고 듣는 것과는 다른 경험을 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호치민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인만큼 처음 방문과는 다른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우선 오토바이로 가득했던 호치민과 달리 하노이는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고급 외제차 등 승용차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음식 등 서민물가는 호치민보다 저렴할 정도로 매우 낮았지만 일주일동안 다녀보니 고급화된 마사지, 호텔, 레스토랑 등 하노이의 빈부격차를 실감하게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들어 하노이에서 가장 크다는 동쑤엉 시장에는

없는 품목이 없을 정도로 종류가 다양하고 하노이 현지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모두 모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렴한 시장의 물가는 숙소 부근의 롯데백화점이나 하노이 시내 광장의 명품거리를 지나면서 본 값비싼 물건들과 대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출국전 연구과정과 수업시간에 배웠듯이 성장하는 베트남의 경제에 숨겨진 빈부격차라는 이면을 조금이나마 현지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노이는 호치민보다 프랑스 식민지의 흔적이 적고 베트남 고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프랑스식 성당과 관공서가 관광코스를 이루는 호치민과 달리 하노이는 성요셉 성당, 오페라하우스 등 드물게 서양식 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흔히 베트콩이라고 부르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하노이에 근거지를 두고 남베트남 식민정부에 대항했던 만큼 하노이는 서양 열강들의 영향을 덜 받았던 역사의 흔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고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하노이의 건물들은 아기자기하고 자연친화적이었습니다. 덥고 습한 열대기후로 전면이 좁고 높이가 높은 가옥 구조가 많았으며 집 밖으로는 무성한 나무가 집을 그늘지게 덮고 있었습니다. 덥고 습한 기후로 인해 카페에서 잠시 쉬면서 자료를 검토하고 회의한 적이 많았는데 카페마다 다양한 열대식물들로 내관을 장식한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베트남 내 한류 영향과 한식당 진출에 관해 연구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주제인 한류와 한식과 관련한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첫날 택시에서 한국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박항서를 외치는 기사님의 말을 듣고 반가움을 표하기도 하였고, 지나가는 곳곳에서 한국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사람들이 베트남에 여행 등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나타내듯 한국 방송에 나온 곳들은 인기가 줄을 이루었으며 이를 이용한 광고판을 내걸은 베트남의 음식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 연구주제인 박항서 감독을 이용한 광고들이 쇼핑카트, 택시 등에 붙어있었고 한국어로 써있는 간판들, 마트에 놓인 한국식품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 한국 방송을 이용한 광고



▲ 박항서를 이용한 광고포스터



▲ 하노이 곳곳의 한국 식품, 한식점

이처럼 베트남과 한국이 특별한 교류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베트남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교류 관계 속에서 한국인으로서 베트남에서 지녀야 할 태도와 베트남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들 하나하나가 민간외교로서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되새겼습니다.

연구를 위해 한식당과 세종학당이라는 어학당을 방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에 내가 기여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과가 끝날 시간인 저녁, 한 교실에 모여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베트남의 학생들을 보며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가 단순히 경제적 교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더욱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실감하였습니다. 스무명 남짓되는 교실의 학생들 중에 두 명만이 한국에 와본 경험이 있을 뿐인데 모두가 한국어를 배우며 꿈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문화의 힘이 이토록 크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후에 다시 베트남을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베트남 친구들을 사귀게 된다면 베트남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 더욱 깊게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노이 세종학당 방문 (19.06.24)

### 3. 연구 소감 및 향후 계획

이번 연구 경험이 전공인 역사와 큰 관련이 있지는 않았지만 연구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기에 배울점이 많고 도전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할 즈음에는 연구자료 폴더 안에 파일이 150개가 넘을 정도로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다른 어떤 수업들보다 학업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자신만의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배웠으며, 해외에서는 연구를 목적으로 할 때 그 곳 사람들에게 구해야 할 양해 등 예의범절과 행동가짐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베트남에 발을 디뎠을 때는 과연 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생각보다 우리 연구에 도움을 주려는 베트남 사람들의 따뜻함에 놀라고 낯선 환경에서 발로 뛰면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해보았던 것이 제 안의 도전정신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연구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인터넷이라는 연결망으로 세계가 연결되었다고는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은 변질되지 않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복돋우며 연구기간 내내 동거동락한 팀원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같은 과였던 동기들 외에도 다른 과 사람들과 한 팀이 되어 국내에서부터 해외 모든 연구과정을 함께 하면서 연구경험이 더욱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조장, 현지일정, 보고서편집 등 각자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팀워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쌓을 수 없는 추억을 국제학부 학부생으로서 겪을 수 있었고 새로운 경험을 넘어 좋은 학우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 의미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향후 해외나 국내에서 진행할 학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스스로 세우고 구체적인 연구 방향을 설정하며 최종적으로 연구과정을 글로 나타내는 과정을 겪었다는 점에서 교환학생이나 대학원 진학을 앞둔 저에게 좋은 바탕이 될 것입니다. 향후에도 언어 등의 장애물에 직면하겠지만 결국에는 언어를 넘어서 연구 방향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도움을 구하려 한다면 어떤 나라이든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고 낯선 환경에 도전해보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변화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연구의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